

울림과 잠김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제 30 호 2022 년 6 월

소공동체지 편집부

반모임 순서

- I. 성호경, 성가, 예수님 초대 기도
- II. 묵상
 - †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 † 복음 읽기
 - † 말씀에 머물기
 - † 말씀의 울림
 - † 말씀에 잠김
- III. 생명말씀 및 실천사항 정하기
- IV. 건의사항 및 공지사항
- V. 소공동체 기도문
- VI. 마침 성가

묵상 길라잡이

-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 마음 열기
 - 복음 말씀을 천천히 두 번 읽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지 집중하여 듣습니다.
- 말씀에 머물기
 -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구절을 적은 뒤 “이것이 오늘 나의 어느 부분에 다가왔는지”에 대해 묵상합니다.
- 묵상과 말씀의 울림 나누기
 - 묵상한 부분을 형제자매님들과 나누어 봅니다. <말씀의 울림>을 참고로 하셔도 됩니다.
- 말씀에 잠김
 - 본당 교우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누고픈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함께 읽어주세요.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빛이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에 아드님을 보내셨으니,
그분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몸이 되신 말씀이옵니다.
이제 주님의 성령을 제 위에 보내시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옵게 하소서.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어,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의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소공동체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9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11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12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13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 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4 사실 장정만도 오천 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쉰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15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16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17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말씀의 울림

- 12 절: “황량한 곳” (“a deserted place”)
제자들이 말하는 황량한 곳을 예수님께서서는 충분한 나눔이 있는 풍요로운 곳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삶의 터전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며 나아가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 17 절: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nd when the leftover fragments were picked up, they filled twelve wicker baskets.”)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주님처럼 나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세상의 이치라며 이리저리 재고 따지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지 생각해 봅시다.

말씀에 잠김

14 절: “대충 쉰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Have them sit down in groups of (about) fifty.”)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라왔던 군중들을 돌려보내시어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며 이곳은 황량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대충 쉰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며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 모여웁니다. 그러나 항상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 해도 제자들의 말처럼 교회가 황량한 곳으로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성당에 오면 너무도 낯선 사람들도 많고, 외톨이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그 많은 교우들과 무엇을 나눌지 몰라 미사가 끝나면 친한 사람들과만 인사를 나누고 그냥 고개 숙인 채 사람들 사이를 비켜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마음으론 더 사람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열어 사람들과 가까이하고 싶고, 더 기쁘고 정성스럽게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깊이 알지는 못할 때가 많고, 같이 봉사해도 미국 생활에서의 ‘사생활’ 개념으로 인해 어떨 때는 묻기도, 또 제 마음을 활짝 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의 나눔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신 듯 제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하자 오십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십니다.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저는 큰 숫자에만 집착해 그 무게감에 억눌려 포기하고 좌절하고 죄의식 같은 강박관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공동체를 사랑해야 하고 전체 공동체에 열린 마음으로 친절해야 하고.. 등등.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쉰 명”은 제게 자신감과 희망을 줍니다. 장정만도 오천 명이 넘는 속에서 오십 명씩 자리를 잡게 하신 예수님처럼 저도 성당 공동체 안이나 밖에서 오십 명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아는 분들이 공동체에서도 오십 명 이상이 떠올랐습니다.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거야, 이거!’ 생각하며 오십 명 정도는 제가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작은 것을 나눌 수도 있고 안부 전화도 하고, 만나면 따뜻한 미소를 보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작은 양의 음식을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시어 모든 이가 배불리 먹었듯이, 작은 나눔의 시작이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께서 축복하시어,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열린 마음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했습니다.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오직 예수님의 시대에만 있었던 이천 년 전의 기적이 아니고, 오늘도 매일 거행되는 미사 성찬 예식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나눔이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들자, 사랑하고 나누지 못해 주님 앞에서 항상 죄스러웠던 마음이, 나눌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품게 했고, 사랑함에 제 몸을 사렸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사 안에서 거행되는 성체 성혈의 신비가 얼마나 크고 거룩한지를 다시 새기게 되면서 혹시 제가 무지하고 준비되지 않아 성체를 흠숭하고 공경하는 덕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진심으로 청해봅니다.

9 51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차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52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53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54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55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56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57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58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59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60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61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62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의 올림

- 60 절: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라.”
 (“But you, go and proclaim the kingdom of God.”)
 우리는 얼마나 즉시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는 일에 충실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 61 절: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
 (“One who sets a hand to the plow and looks to what was left behind”)
 지나온 시간을 후회만 하고 살 것인지 매일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을 알기에 애쓰며 살아갈 것인지 나의 다짐을 나누어 봅시다.

말씀에 잠김

59 절: 『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And to another he said, “Follow me.” But, he replied, “(Lord,) Let me go first and bury my father.” 』)

내 고국을 떠나와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우리는 연로하신 부모님 생각을 할 때면 한없이 죄송스럽고 조마조마한 마음이 늘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전화라도 자주 드릴 걸, 해마다 일부러 짬 내서 찾아 뵈는 걸, 저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지내다 보니 놓치고 살아온 소중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실 줄로만 알고 착각하고 살아온 저 자신이 후회스럽고 부모님의 자리를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그분들의 부재가 나의 모든 것인 양, 내가 텅 비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식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고 부모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깜짝 놀랄 답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십니다. 인간으로 해야 할 도리,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먼 여정을 떠나기 전 자녀가 부모에게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처럼 우리의 문화에서 타당해 보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느님 나라를 위한 삶과는 충돌될 때가 있음을 보여주시며, 굳은 결심을 가지고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주님을 위한 삶을 가장 우선시 하며 살아가는 자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서 부모의 장례식은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에 기록될 정도로 하느님께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죽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하느님 나라에 확실히 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는 길은 고난이 따르고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쉽지 않은 길,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길과 주님께서서 원하시는 길의 갈림길에 서서 우리의 선택이 고난을 동반한다고 할지라도, 굳은 결심으로 주님을 따른다면 지금 당장은 죽을 것같이 힘들어도 그 길이 삶의 숨구멍이 되어 풍성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

조금 느린 아이

박주원 대건안드레아

작년 온라인으로 한글학교를 운영할 때 1학년 선생님이 '조금 느린 아이'라는 동요를 같이 불러 보라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작은아들과 그 노래를 하다 보니 점점 좋아져서 계속 부르게 되었고 아직도 이 곡을 들으면 행복해집니다. 윤학준 작곡 이수영 작사의 '조금 느린 아이' 가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보다 더 빠른 세상에서
친구보다 앞서라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천천히 걸어가는
한걸음 느린 아이
꽃향기 맡아보고 밤하늘의 별 쳐다보고
친구 얘기 들어주고
가끔씩 뒤도 돌아보는
조금 느리게 가는 아이
마음은 커다란 아이
저 길 끝에 보이는 꿈 따라가면
느린 걸음 걸음 마다
반짝 반짝 환하게 빛이난다

경쟁에 강한 아이보다 마음이 커다란 아이가 빛이 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실천이 어렵습니다. 이기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게 재밌는 거라고 큰아들한테 말해도 또래들과 등수를 따지고 게임에서 지면 괴로워합니다. 작은아들은 체스클럽에서 3등을 했다고 평평 울었습니다 (요즘은 2등 이하는 모두 3등 트로피를 줍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는 저는 속상하지만 괜찮다! 그래도 재밌었지? 1등 한 친구는 축하해 줘어? 하며 말을 걸어 봅니다. 최대한 토닥여주고 아이들이 잠이 들면 와이프랑 와인 한잔하면서 탈탈 털린 엄마아빠의 멘탈도 케어해 줍니다.

자신의 노력과 행동의 결과가 지금은 안 보여도 언젠간 도움이 된다는 걸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대학에서 일한 지 15년이 되어 가는데 졸업한 학생들은 대부분 연락이 두절 됩니다. 그러다 5-6년이 지나 잊어먹을 때쯤 되면 몇몇 학생이 "선생님 그때 들었던 수업이 요즘 일 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네요." 하며 메시지를 보냅니다. 숙제도 겨우겨우 해 가며 간신히 졸업한 학생이 이렇게 연락하는 게 처음엔 신기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 수업의 결실은 더디게 나타난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효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큰 사랑도 더디게 알게 됩니다. 팬데믹을 몇 년간 겪으며 제가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건 가족과 동료, 이웃과 공동체가 있어서라는 걸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동안 때에 맞는 만남과 시련과 행복의 타이밍을 조율해 준 하느님의 큰 사랑도 이제서야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교리와 말씀과 사랑이 지금에서야 와 닿습니다. 아마 저희 아이들도 집을 떠나고 긴 시간이 지나고서야 이런 느낌이 들겠지요. 아이들도 느리지만 크고 확실한 사랑을 받게 하려고 와이프와 토의하고 고민합니다.

교장으로 봉사했던 한글학교도 조금 느리게 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당 특성상 한글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말을 유창하게 하는 아이와 가나다도 모르는 아이들이 같은 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못하는 아이들을 끌어 올리는 걸 중점으로 수업을 진행해 달라고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도 한글학교를 오는 게 즐겁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6 학년 때 아버지가 아르헨티나 주재원으로 발령받으시며 한국을 나온 후 30 여년간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생활은 한인 성당에서 만난 주일학교 친구들 때문에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글학교의 아이들을 보면 제가 한국말로 물으면 스페니쉬로 대답하던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1.5 세부터 교민 3 세까지 모여 즐겁게 지낼 수 있었던 한인 성당은 가족과 학교가 못 주는 무언가를 채워 줬습니다. 저를 포함한 한글학교 선생님들도 수업을 못 따라가도 ‘조금 느린 아이’ 가사처럼 친구들끼리 얘기 들어주고 마음이 커지는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느린 걸음 저희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게 한글학교에 많은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네방네 메아리

- TR3: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자.” 이번 달 실천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 TR4: “기다리던 김리아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안유민 크리스티나 자매님과 김성년 형제님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길 반원분들이 함께 기도 드립니다.
- RC4: 이번 달 대면 반 모임은 뜻깊은 자리였고, 앞으로 반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 NV2: 성당 교우분의 장례미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며 사랑의 실천인 것 같습니다.
- NV3: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레지오 활동등을 통한 성당 활동과 묵주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내려놓게 되어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 NV4: 나 자신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고, 이로 인해 선한 기운을 이웃이나 주변에 전파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WBL: 한일호 예로니모 형제님을 기도 속에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봉사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실천사항

1. 예수 성심 성월을 맞아 예수님의 거룩하신 마음 닦기를 기도하며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기
2. Father's day 를 맞아 마음을 열고 아버지와 대화하며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기

가정을 위한 기도문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 아멘.

자녀를 위한 기도문

-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standrewkimdet@gmail.com